

<2013년 7월 26일 금요 진성운 선생님 명강의>

<2005년 1월 2일 주일예배>

행한 사람은 빛을 발한 사람이다

본문: 마태복음 22장: 34-40절/ 이사야 60장:1절/ 요한복음 5장:24절

<마22:34-40>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60: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요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금년도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뉘인가 새롭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 한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마22:34-40>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60: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요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 말씀을 봤습니다. 선생님은 피곤합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준비를 다 못했으나 다음주에는 준비를 다 해서 잘 갖추어 놓겠습니다. 환경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비한 가운데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환경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찬양을 하겠습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는 노래를 환경 따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름 받아 나왔지요? 나도 부름 받아 나와서 주님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 하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생각나서 이 노래를 택했습니다.

또 하나의 노래는 ‘추억’을 하겠습니다. “섭리사로 발길 돌려 돌아설 적에..” 이 두 곡을 지휘하겠습니다.

♪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 추억

또 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신 신입생들에게 말로 환영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장년부, 가정국, 청년부, 캠퍼스. 중고등부, 유초등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뒤바뀌어도 선생은 안 바뀌었고 말씀도 안 바뀌고 연속 연결됩니다. 머리 속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다음주에는 단상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나가 봐야 하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금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파트로 나누어서 말

숨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목적이 목적이라 했습니다. 제목이 요상했습니다. 음성을 들은 대로 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뭐냐? 나의 목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귀신들린 아이를 둔 엄마가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우리 딸의 병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그 여자를 만날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지금 찾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기 시돈 땅으로, 두로 지방으로, 이런 곳으로 찾으러 가는데 여자가 불렀습니다. 잃은 아들을 찾으러 가는데 누가 부른다고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한다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르는가 했더니 어떤 여자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잃은 자식을 찾아주러 왔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탄 사람에게 주겠냐. 자기 애인에게 주려고 사 가지고 가던 것을 남이 달라고 한다고 주겠냐? 그런 입장이다.” 하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떡을 먹을 때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부스러기 시간이라도 좀 내주고, 부스러기라도 나를 돕 도와달라고 하니깐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그러는데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네 믿음대로 되라.” 이게 큰 말입니다. 이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속였으면 안 나올 것이고, 안 속였으면 나올 것이라는 말이니 얼마나 공의로운 것입니까.

믿음대로 되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믿었으면, 네 믿음대로 되라! 나 바쁘다.” 하고 한마디 해주고 빨리 떠났습니다. 결국 그대로 돼서 목적을 달성하여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왔습니다. 믿음대로 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보고 네 믿음대로 되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부정 부패는 믿음대로 안됩니다. 옳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지요? 다시 생각나게 한 것은 일주일 동안 목적대로 되었냐는 것입니다. 또 1년 동안 목적대로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피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문제는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왔어도 목적을 달성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30만원을 벌기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옷이 없어서 교회에 갈 때 옷을 사 입고 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새 교회에 갈 때 옷을 입으려니 옷이 없지요? 선생님도 간신히 주일 양복을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옷이 없을 때는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나도 그전에 교회에 갈 때마다 어떤 옷을 입을까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가 안돼서 30만원을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옷을 한벌 사준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고 옷을 사주었습니다. 돈을 들여서 몇십 만 원 짜리를 사주었습니다. 그 옷을 가지고 주일날 잘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나?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혼자 생각했는데...’

혼자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못 벌었지만 옷은 사 입게 되었으니까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목적이다 했듯이 이렇든 저렇든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된 것이 아니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도 72년도에 경기도 광주에 가서 고생할 때 겨울철에 추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올 겨울에는 아무래도 너무 추워서 얼어죽겠다. 옷이 없는데 지가 얼어죽지...’ 생각했습니다. 그 때 반소매 옷을 하나 입고 있었습니다. 하도 빨아대서 바래 가지고 색깔이 변해버렸었습니다. 그것을 겨울에 입고 다녔습니다. 교인들은 다 검은 양복을 입고 코우트를 입고 다니는데 나는 반소매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나를 보고 안춥냐, 미쳤냐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 사람이냐?”

“금산 사람 아니냐.”

“인삼을 하도 많이 먹어서 겨울철인데도 더워 죽겠다. 얼마 전에도 인삼을 몇 개 삶아 먹었더니 열이 나 죽겠다.”

“야~ 그것을 우리도 먹을 수 있냐. 금산에서 사 올 수 있다.”

“그렇게 덤냐?”

“그렇게 좋다.”

“겨울에 저렇게 입고 다니면 너무 망신이 아니냐.”

“괜찮다. 나는 덤다. 시원하다. 좋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덤다. 대개 추위

서 옷을 그렇게 입지 않느냐. 나는 더우니까 이대로 지낸다.”

그러면서 카바는 했지만 속으로는 추워서 계속 덜덜 떨었습니다. 언젠가는 기도할 때 “예수님, 옷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좀 3만원만 생길 수 있나요? 헌 옷이라도 사 입게... 너무 너무 힘들다. 무슨 연단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광주 성결교회의 고 장로님이 나에게 자기 입던 옷이라 하며 양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게 맞기는 맞는데 소매가 좀 길었습니다. 상의와 바지 한 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벽예배를 볼 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놈을 입으니 벅타이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벅타이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고 내일 아침에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와이셔츠도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 준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갖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할지 몰라도 갖다 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옷을 갖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옷 좀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양복을 입었는데 그 분이 키가 커서 나에게 길었습니다. 소매도 길어서 집에서 꿰매서 입었습니다. 그 양복이 회색 양복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옷을 한 5년 입었으나 새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원하면 또 한 벌이 있으니까 입으려면 입으라고 했습니다.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복을 입게 되었는데 그렇게 뜨겁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쳐다보기를 원했습니다. 내 얼굴이 시커머니까 회색이 잘 어울립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어차피 목적만 이루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좀 힘들고 어렵든 나처럼 이리 저리 아굴 골짜기 같은 곳을 가든 해골 골짜기 같은 곳을 가든 목적만 이루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목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이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편하게 글을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쫓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무슨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무슨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나름대로 이랬든 저랬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픈 사람들도 병원에 가서 나았든지, 이랬든지 나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나았든지, 월명동에 와서 물을 먹었든지, 음식을 해서 나았든지 나았으면 됐다는 것입

니다. 목적만 달성시켰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압니다. 꼭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다르게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옷을 사 입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가 안되었으나 다른 사람이 옷을 사 주었으면 목적 달성이 되었잖습니까. 하나님이 해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내가 너에게 해주었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주 말씀을 그런 입장으로 인식을 시켜주도록 하라 해서 금주에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행한 사람**”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제입니다. 행한 사람은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행해야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행한 사람은 목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를 중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선생이 율법사였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물어보았으나 그들이 감히 대답을 못할 정도로 다 대답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그저 한마디로 다 대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가 보았습니다.

‘에이 내가 율법의 최고 법을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미리 이야기도 안하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 가지고 시험적으로 물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나 율법사인데 한가지 묻겠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큼니까.”

사실 이것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 엄청나게 강조한 것이 많아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율법주의 선생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고 수백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만큼 성경을 많이 본 것입니다. 사생에 기간 가운데 무지하게 본 것입니다. 나도 사생에 기간 가운데 성경을 수천번 읽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도 어려워서 수천 번이 아니라 더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한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맞추니까 율법 선생이 다시 대답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조금 더 보태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 때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노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을 실천하리라.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계명을 제일 크게 봤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을 제일 크게 보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답을 하니 율법사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도 있지만 성경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지금 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마차로 몇 대나 실어야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양피 가죽에 썼기 때문에 양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알지 안 봤다면 모르지 않습니까. 봤던지 들었던지 배웠던지 그 만큼 메시아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도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안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구시대 사람들에게 당합니다. 신학을 한 사람들이나 기성의 사람들한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은 것이 있는데 아직 말하지 않았으나 언제 이야기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에 들어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고 예수님을 테스트 했을 때 예

수님이 율법 말씀을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제일 큰 계명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나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크게 보는 계명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 테스트한 것을 예수님이 대답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한 말씀입니다.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해도 의미와 근본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선생님이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본문 말씀이 다르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 쏠리다 보면 그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한 후 내가 다시 들어보면 틀리게 한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착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설명하다 그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더러 있지요?

‘아 선생님 이것은 틀린데요... 앞뒤가 안 맞는데요..’ 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틀린 것입니다. 다음 설교에 그 말을 한다는 것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 것은 교역자들이 보충을 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예수님이 보는 최고의 계명이면 좀 찝찝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나름대로 사랑했는데 왜 메시아가 왔을 때 못 맞이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회교인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유일신으로 사랑합니다. 그저 무릎꿇고 계속 사랑하고, 하루에 세 번 네 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합니다. 내가 그들과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참 착하고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해보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도 보통으로 하지 않고 잘 대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종의 차원에서 모시고 섬기는 것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나를 보려면 그들을 보면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가슴이 뜨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닮은대로 자녀식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인식입니다.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오리지날을 보려면 그들을 봐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형제도 그렇게 사랑합니

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못 맞았을까?

여러분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신약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큼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묻는 사람이 답을 알고 묻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물어도 답을 모르고 물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제도 알고 답도 압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께서서는 신약말씀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못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맞았다면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종과 종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물어봤습니까? 답을 알고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성경 말씀 읽은 것에서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이게 제일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뭘니까 하고 물었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면 예수님은 안사랑해도 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네 종들끼리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나 보내신 자를 믿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유익인 줄 압니까.

첫 번째 사망에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오듯이 사망에서 나오고 흑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귀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것은 산다, 부활된다는 말입니다. 살아나는 것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구세주가 살리리 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심판을 면합니다. 죽은 사람만 심판을 받습니다. 나왔으니까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제일 큰 것인데 다시 살아나지, 심판 면하지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활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휴거입니다.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영들이 살아나서 영적 차원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정신

부활, 육체 행실부활이었지만 지금은 영 부활입니다. 영 부활이 되지 않으면 영영 안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의 부활의 된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닫고 기이히 여기지 말라!

지금 나에게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형제끼리 사랑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잔소리 말고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 믿어.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고 믿어! 그러면 끝나. 그러면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테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할 테니까. 형제가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해줄게.”

여러분, 애인이 애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큼니까, 형제와 형제의 사랑이 큼니까, 종과 종의 사랑이 큼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보라는 것입니다. 따져놓고 알아야지 무조건 남이 주장하는 대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주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대답한 말씀입니다. 꼬떡 꼬떡 시인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야 암행어사가 됩니다. 암행어사가 얼마나 무서운 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면 암행어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하면 옆의 사람 귀가 따갑습니다.

바로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으니 더 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미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을 너무 미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사랑해봤습니까. 나도 옛날에 기독교 신앙을 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라고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살아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다는 것인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막 몸부림을 치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쓰러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 해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것인가?

한 사람에게 단상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들어 보라 했을 때 킁킁대며 힘을 다하였으나 못 들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도 안되지 않

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들어볼게 하고서 몸부림을 안쳤는데 들었습니다.

행한 자, 행한 사람! 행한 사람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막 몸부림만 치고 한다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킨 것을 했냐?” 했을 때 “했습니다.” 한다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았구먼.”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너 내가 시킨 것을 했냐?”

“못했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안살았구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맞지?”

행한 사람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지난 주 말씀과 금년도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다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한 사람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산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쳤든지, 몸부림을 안치고 웃으면서 했든지 행한 사람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람입니다.

단상을 들려고 어떤 사람이 막 몸부림치며 킁킁대며 수고했으나 못 들었습니다. 그에게 “너 이것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물었습니다.

“막 몸부림을 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했는데 못 들었어요.”

“그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못했구먼.”

“너는? 너도 한번 해봐.”

“네? 이것을요?” 그랬는데 그가 들었습니다. “어! 너는 했구나.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았구먼. 했구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다는 한계를 모르겠네요.”

“행한 자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했다고 치는 것이다. 하늘 나라에서는.”

알겠습니까. 못 행한 자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심판합니다. 누가 됐든지 심판하는 그 사람은 그것을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단상을 멋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또 돌아다니며 볼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다는 것을 알겠지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했다는 표상이 뭐고, 어디까지 한 것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것인가?
딴 것이 아닙니다.

“너 이성의 범죄를 저지르면 안돼!”

“네!”

그 후 1년 뒤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성문제 없었어?”

“네! 없었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았구먼.”

“그거 뭐 힘도 안들었는데요.”

“그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산 것이여.”

“너는?”

“저는요... 몸부림을 치고 이를 북북 갈며 살았는데도요...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금식 일주일 미리 했던 말이에요. 죄송해요...”

“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지 않았어.”

“안 그랬어요. 그것만큼은 정말로 선생님께 말하고 싶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했는데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아니여. 그것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못한 거여. 금식 일주일 했어? 그것 헛일이여. 요새는 금식 일주일 잘 안 시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일곱명 해야지. 생명을 살려야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낫잖아? 금식 일주일 해서는 살만 빠지잖아? 그것은 옛날식이고 지금은 부활식으로 전도를 해야지. 야 이 바보야. 니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했다면 왜 그것을 못지켜? 딴 사람은 힘도 안들이고 다 지켰던데.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지, 이성에 신경을 안 썼던지.”

“알았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항상 실패한 다음에 알았다는 얘기만 하고... 확인하지 말고 믿으라. 꼭 나쁜 것을 확인하고 믿으려고 그러느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산다는 것의 인봉을 뎌 것을 언제 해주겠다고 했는데 요번 주에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지요? 이와 같이 모든 세 계가 그러하니라!!

“예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는 힘이 안 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너무 힘들다고 못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며 모세에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함으로 감격함으로 사니까 그것을 웃으면서 지키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서워 할 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가나안 복지에 못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실 너무 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 안 하니까 살인하는 것보다 지키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어렵다 하지 말고, 그것을 지키려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지키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너무 쉽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킨 자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산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행한 사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율법의 최고의 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10분의 1도 힘이 안 듭니다. 마음을 먹고 각오를 먹어 버리면 10분의 1의 힘도 안들이고 행해집니다. 어떤 것은 정말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기어이 할 테니 구경하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내가 혼자 기어이 할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초근초근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급하게 하지 말고 초근초근 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혼자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근초근 하니까 단상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잘 만듭니다.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오밤중에 어디 가서 사 올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 낮이 아닙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 상황에서 초근초근 하라 하셨습니다. 조명도 제대로 안되지,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랬으나 전등을 사다 달고 이 놈 달고 저 놈 달고 해서 이렇게 아쉬운 대로 비추게 했는데 얼굴이 어둡게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해해달라고 니가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초근초근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근초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니까 초근초근 하면서 이 놈 갖다 붙이고 저 놈 갖다 붙이고 그러고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도 이런 것을 잘 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라면 박스를 갖다 했습니다. 한국의 영동 지하에서 주일은 돌아오지, 예배 시간은 됐지, 단상은 짤 수도 없고 사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때 라면 박스를 주워왔습니다. 라면 박스를 다섯 개인가 여섯 개를 놓고서 종으로 두르고 압정을 찢어놓고 설교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다 써먹고 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행한 자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일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면 된다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했는데 안된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상하다?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요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하겠다는 결심을 먹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먹고 계속 하면 됩니다.

요번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구경하세요. 나 혼자 기어이 할 테니까.” 그랬더니 “천천히 해. 당황하지 말고. 꼬무락 꼬무락 당황하지 말고 하도록 하라. 이것 저것 아무 것도 없어도 꼬무락 꼬무락 하면 된다.” 했습니다.

“조명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했더니 “여기서 조명이 없으면 편지를 써. 여기서 찍은 영상을 가지고 시디 만드는 데에다 얼굴 좀 환하게 넣어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초근초근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어색하기는 어색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는 어색해서 웃음도 안나오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 첫 주일에 무슨 말씀을 했었지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머물렀다.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했습니까? 얼굴빛을 발하고 다녔습니까, 전도의 빛을 발했습니까, 삶의 빛을 발했습니까, 무슨 빛을 발했습니까.

“행한 사람!”이라 써놓은 것을 보십시오. 행한 사람은 빛을 발한 사람입니다. “행한 사람은 빛을 발한 사람이다!!”

2004년도의 표어가 “빛을 발하라.” 했을 때 여러분이 “야! 빛을 발하고 살라 하니 기분 좋다. 성경 말씀도 좋다. 제목이 좋아야 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 대신 간판값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예쁘게 지으면 뭐 합니까. 간판값을 하고 이름값을 하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이름 값을 한다고 꼬질 석(析)을 쓰니 탁탁 꼬집니다.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분명히 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괜히 선생님이라고 입장 곤란하다고 엄병덤뽕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선생님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 말씀을 대답한 말씀이지 예수님이 원한 말씀은 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빛을 발하라 했는데 여러분은 무슨 빛을 발했습니까. 혹시 빛을 안 켜습니까. 빛을 발하라 했는데 빛을 켜진 것은 아닙니까. 빛쟁이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빛을 발한 사람들은 누구냐? 나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늘이 볼 때 행한 사람은 빛을 발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행한 사람은 빛을 발한 사람이다.” 이 주제 말씀을 쓰라 해서 썼습니다. 일단 한 사람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람이다!

“행했나?”

“행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람입니다.

“목적이 목적이다! 목적을 이루었느냐?”

“네.”

행한 사람은 목적을 이루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1년 동안 빛을 발했는지 기억나라고 12월 달에 다시 말씀을 넣었습니다.

빛을 발했느냐? 행했느냐? 못 행했으면 빛을 못 발한 것입니다. 내 얼굴이 이만큼 빛을 발하는 것은, 그런 조명을 안 가지고 왔어도 전구를 사다가 해놓으니 나름대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행한 사람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휴 내가 여기서 언제 시내에 가서 -도시의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다마(전구)를 사와? 병어리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이 그냥 어둡게 나가면 세계의 수십 개 나라로 내 얼굴이 어둡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한 사람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도대체 안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일 아침에 녹화를 해서 보내면 늦어서 여러분이 주일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나가야 되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동영상으로 안하고 그냥 음성만 떼서 보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근초근 하라 하셨습니다. “왜 당황하느냐? 초근초근 하지.”

요즘은 영혼의 빛을 발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빛을 발해서는 안됩니다. 영혼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혼이 부활되고,

영이 부활돼서 육신을 다스리고 정신을 다스리고 혼계를 다스려야 됩니다. 정신계가 부활돼서 영을 다스려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다스리는 격이고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는 격이고, 이 세상이 구원자를 다스리는 격입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머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래서 영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늘 “영적으로 다스리자. 영적으로 일하자. 그러면 모든 일이 잘되고 모든 일이 빨리 빨리 형통되고 빨리 빨리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 가나안 복지를 확 밀어붙이고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100% 가능, 육적으로 보면 암담합니다.

나만 영적으로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못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갈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는 777수요, 육적으로 가는 자는 666수입니다. 흑암의 수입입니다.

요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되었습니까? 지금 부활되고 있습니까? 부활기는 잠깐이라 했습니다. 부활기가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새벽 말씀은 여전하게 계속 전해줄 것입니다. 새벽말씀은 영적인 말씀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요새 장소 때문에 리듬이 약간 깨졌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내일 아침도 또 주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행한 사람”입니다. 내년도도 주일날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송구영신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여유있게 말씀할 시간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말씀도 뜨기 전에 간신히 해서 보냈는데 여러분이 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까딱했으면 크리스마스 말씀을 못 줄 뻔했습니다.

오늘 2004년도의 말씀을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빛을 발하라 하면서 왔다. 했냐? 행한 자는 빛을 발한 사람이다.”

내년도의 말씀은 “표적을 일으키라!”입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역시 행하는 사람이 표적을 일으키지 행치 않는 사람이 표적을 못 일으킵니다. 행하는 사람이 각자 표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한 사람들은 행한 자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익을 본 자들은 빛을 발한 사람들입니다. 빛을 발하면 유익을 봅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간 사람은 유익을 본 사람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람이 누구냐? 행한 사람입니다! 행한 사람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을 받고 얻은 사람은 행한 사람입니다.

유익이 없었다? 이익이 없었다?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행하여 이익을 남겼다 했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섯 달란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행했으니까 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급하게 써왔는데 다했습니다. 오늘 조목조목 말씀했는데 잘 들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가서 또 생각도 하고 그러십시오.

주일날은 예배 드린 말씀을 가지고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됩니다. 주일날을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 했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는 날에 안식하며 말씀도 공급받고 그래야지, 그냥 돌아다니고 하면 안됩니다. 예배 끝났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안됩니다.

선생님은 그 전에 석막교회에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은 예배 끝나치고 배구하러 가고, 콜라나 환타 같은 음료수를 먹고 그랬습니다. 나도 배구하고 싶어 미치겠고 그들과 같이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안가고 전도지 쫓아지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에 가서 노래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과 나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때 배구한 사람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반기 역사에 엄청나게 시간을 썼습니다. 하루 종일 운동을 해줬지...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못합니다. 내가 지금 글을 한 시간 써놓으면 그것이 천년동안 갑니다. 천년동안 사람이 봅니다. 그것으로 운명을 좌우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운동해서는 보여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지금 불과 한 시간 남짓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뭔가 확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수만 번 수십만 번 틀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다 갖다 줘보십시오. ‘야 말씀이 신기하다! 고상하다! 아, 이 말씀을 이제 내가 깨달았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네. 빛을 발하라 했는데 누가 빛을 발한 사람인가 했더니 한 사람이 빛을 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줘야됩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행악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라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대로 들어주십니다. 빛을 발하고, 목적은 목적이다 했

으니 목적을 이행할 테니까 반드시 늘 기도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은 다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은 영적인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해주실런지 어떤 말씀을 해주실런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주일말씀을 연속하여 가면서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년도로 짝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의 주일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말씀을 죽 하는데 만약 교통 때문에 못 보내게 되면 내년도에 보내든지 할 것입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들었으니 이들이 말씀을 듣고 근본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목적은 목적이다, 빛을 발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행하도록 하라, 기적을 일으키려면 행하라, 행한 자가 유익된다, 그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자다, 인정한다, 목적을 이룬 자도 행한 자다, 표적을 일으킨 자도 행한 자다,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축복해주시고, 영육이 잘되고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금년도에 행치 못한 자는 내년도에 표적을 일으켜서 배나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 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하심이 함께 하며,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모든 섭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지만 참고 견디면 목적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 하고, 온 지구상의 모든 자들 위에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권면의 말씀>

내일 새벽에 또 열렬하게 일어나서 새벽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영적인 말씀을 계속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부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이 바이!